

미리넷솔라, 태양전지 60MW 증설

대구공장 국내 최대 90MW로 확대 ... 2012년까지 공급계약 1조원

미리넷솔라가 대구공장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90MW로 확대해 국내 최대 생산기지를 구축한다.

미리넷솔라는 9월18일 오전 11시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대구공장에서 태양전지 제2기 생산라인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면적 1만2125㎡, 60MW 생산라인을 증설함으로써 생산능력이 90MW로 확대돼 국내 최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미리넷솔라는 독일과 인디아, 홍콩, 터키 등과 2012년까지 태양전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주액이 약 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GW급으로 생산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철 미리넷솔라 회장은 “태양전지는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환시켜 탄소배출 없이 전력을 생산·공급해주는 친환경제품”이라며 “규모화를 통해 태양광 산업을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17>